

‘GIST 광양연구소’ 설립 내년부터 본격 추진

광양시-광주과학기술원 협약
철강 중심 산업구조 탈피
신산업 창조경제 모델 제시

2020년까지 3단계 추진
인재양성·첨단분야 연구 등
지역발전 앞당기는 계기로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양연구소 설립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양시와 광주과학기술원은 최근 ‘GIST 광양연구소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광양지역 신산업 창출하는 연구기관 설립=양 기관의 협약 내용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비해 광양지역 신산업 창출로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 촉진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R&D(연구·개발) 연구기관인 ‘GIST 광양연구소’를 광양시 일원에 설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및 제반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연구소 설립에 소요되는 재원은 GIST가 확보하되 광양시가 재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GIST는 광양연구소에 오는 2020년까지 국비 350억원을 확보해 ▲부



지 1만6000~2만6000㎡ ▲건축연면적 1만~1만2000㎡ ▲교수 등 연구인력 45명 규모로 신소재·해양·에너지·환경 분야 등 실험실과 전문공학석사 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실, 교수실 등을 구축해 연간 20명 규모의 전문 공학석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GIST 광양연구소 설립사업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에 반영됐고, 설립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서에 대해 지난달 초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협약체결로 광양시와 GIST는 앞으로 추진협약체제를 구성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이사회의 의결 등 사전 절차 이행과 국비 확보를 추진하게 된다.

◇철강 중심 산업구조 벗어난 신산업 창출=광양시는 도시기본계획과 투·융자

심사, 중기 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연구소가 설립되는데 상호협력할 방침이다.

GIST 광양연구소가 설립되면 광양만권 지역산업과 공동 R&D 체계를 구축하고, 그동안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신산업 창출과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초·중·고 학생과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과학체험 및 과학강좌를 개설해 상상력이 넘치는 광양시를 조성하는 등 지식과 산업이 결합한 창조경제의 신모델을 제시, 광양시장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GIST 광양연구소는 앞으로 G-큐브(Cube)를 구축하게 된다.

G-큐브는 광양시 일원을 ‘그린(Green) 테크놀로지 존’으로 구축, 세계적 연구성과와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GIST-Gwangyang(광양)-Green

technology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GIST와 광양시가 상호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GIST 광양연구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별 나눠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1단계(2015~2016년)는 ‘기본 구축단계’로 특화연구소 설치와 우수인력 유인 요소를 창출하며, 2단계(2017~2018년)는 ‘성장단계’로 지역산업과 공동 R&D체제 구축과 전문공학석사(연간 20명 규모)를 선발한다.

이어 3단계(2019~2020년)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신산업 창출과 석사를 배출하는 등 R&D 허브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성웅 시장은 “최근 4~5년 전부터 제철산업이 하향세로 돌아서며 생산량은 높지만 수익성은 낮아져 광양만권의 지역경제가 어렵다”며 “연구소 유치로 인재양성, 첨단 분야연구, 창조경제와 맞물려 지역발전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 1995년 3월 개원해 석사·박사 등 3835명을 배출했다.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사가 지난해 발표한 2013년 세계대학평가의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부문에서 세계 6위로 평가되는 등 연구중심 대학으로 인정 받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내일 서천변에서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가 14일 오후 7시 광양읍 서천변 특설무대에 열린다.

올해 6회째를 맞는 가족콘서트는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여수MBC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순수 아마추어 음악경연대회로서 각박한 현대사회 속에서 가족애, 동료애, 지역애 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여수MBC 공개홀에서 열린 예선에는 가족과 직장, 동호회 단체, 대학 동아리 등 26개팀이 참가해 열

민 경쟁을 펼친 결과 12개 본선 진출팀이 확정됐다. 대상 입상팀에는 상금(300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14일 본선에서는 초대 가수 Pia와 서지오, 김희진, 박항서 등의 축하무대도 꾸며질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12개 본선 참가팀들의 숨겨진 재능과 실력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양만권 화합의 축제인 ‘가족콘서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윈드서핑 교실 운영...9월말까지 매주 토·일요일

광양시 윈드서핑 연합회(회장 김관배)가 윈드서핑(Windsurfing) 저변확대에 발 벗고 나섰다. 윈드서핑은 보드로 파도를 타는 ‘서핑’과 돛을 달아 바람을 이용하여 물살을 헤치는 ‘요트’의 장점을 따서 만든 해양레저 스포츠이다.

광양시 윈드서핑 연합회는 지난 7월 첫 교육(사진)을 시작으로 오는 9월 말까지 매주 토·일요일(오전 9시 30~오후 3시 30분) 태인동 근린공원앞 수역에서 윈드서핑 교실을 운영한다.

오전은 이론 및 지상훈련, 오후는 보드 실습과 세일링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윈드서핑 교실은 장비대여료와 교육비는 무료이나

보험료(4000원), 갈아입을 옷, 도시락 등은 교육생이 준비해야 한다.

참가신청은 다음 카페 검색창에 광양 윈드서핑 아카데미(cafe.daum.net/kywindacademy) 게시판에 신청하면 되고, 원활한 교육과 보험가입을 위해 교육일 3일 전까지 접수해야 한다. (하루 20명까지 선착순 모집)

김관배 연합회장은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윈드서핑 체험을 통해 시민들의 물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물론 윈드서핑 동호인 저변 확대로 광양시가 해양스포츠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주과학기술원은

- 1995년 3월 개원
- 석사·박사 등 3835명 배출
- 2013년 QS세계대학평가 6위
-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6년 연속 아시아 1위

GIST 광양연구소는

- 2013년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반영
- 2020년까지 국비 350억원 확보
- 부지 1만6000~2만6000㎡
- 건축면적 1만~1만2000㎡
- 교수 등 연구인력 45명 규모
- 신소재·해양·에너지 등 실험실 확보

3단계 추진 전략은

- 1단계-2015~2016년 구축단계 특화연구소 설치·우수인력 유인 요소 창출
- 2단계-2017~2018년 성장단계 지역산업과 공동 R&D체제 구축·전문공학석사 선발
- 3단계-2019~2020년 R&D 허브 강화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전문공학석사 연간 20명 배출



광주과학기술원 전경

광양제철 외주파트너사협회 소방시설 기증

광양제철소 외주파트너사 협회(회장 김광열)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광양소방서에 기증했다.

제철 외주사(회원사 62개)는 지난 1987년 결성 이후 소방 사각지대인 농촌마을과 독거노인, 장애인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며 소외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왔다.

협회는 지난 10일 광양소방서를 찾아

소화기 150대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150대 등 300대를 기증했다. 이날 기증된 소화기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전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사용된다.

김광열 외주 파트너사 협회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인 애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정부 조달물자계약 업체

모든 가구가 한곳에!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웹사이트 ID : gane82 / PW : 1111
광양시 중앙로 494-1 (마동경수상 앞)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효창건설(주)



효창건설(주) T (061)792-5577 H 010-3622-7755
대표이사 송재무 위치 : 광양시 강변로 41 (광영동)